

의정칼럼

강 수 훈
광주시의원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짜 일 줄이기'라는 화두를 던졌다. 실적을 부풀리는 행위, 보여주기식 보고, 실제 없는 성과 포장. 공공 영역 곳곳에 만연한 '가짜 노동'을 줄이겠다는 문제의식이다. 이 흐름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 정치에도 '가짜 일 줄이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정치에서의 가짜 일은 무엇일까. 실행 가능성 없는 공약을 낭비하는 일, 이미 예정된 사업을 마치 본인의 성과인 것처럼 포장하는 일, 보여주기식 간담회와 사진만 남기는 현장 방문, 책임지지 않는 말들, 그리고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말로 실패를 덮는 태도까지. 형태는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하나다. 정치인이 부지런하게 일은 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단지 정치인의 태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가짜 일이 반복될수록 행정은 비효율로 굳어지고, 시민은 정치에 무관심해지며, 결국 민주주의의 토대인 신뢰가 무너진다. 정치가 시민의 삶을 바꾸지 못 한다는 체념이 사회 전반에 퍼질수록, 그 뒤 자리는 극단과 혐오가 채운다. 정치는 스스

정치에 '가짜 일 줄이기'가 도입된다면

로의 신뢰를 깎아먹으며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셈이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오랫동안 정치가 '성과를 만드는 일'보다 '성과처럼 보이게 만드는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써왔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말은 앞서가고, 현장은 따라오지 못했다. 공약은 넘쳐났지만, 완수된 약속은 손에 꼽혔다. 그 사이 시민들의 신뢰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닳아왔다.

광주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이 문제를 더욱 절실히 느껴왔다. 20년 넘게 면회 있던 양동 시장역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 수년간 논의만 반복되던 광주전 생태하천 복원, 지역 상권과 교통, 안전 문제들, 이들 대부분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어서가 아니라, 책임있게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이 없어서 지연된 사안들이 있다. 정책은 있었지만 추진력이 없었고, 계획은 있었지만 완수의 주체가 부재했다.

정치에 '가짜 일 줄이기'가 도입된다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평가 기준이다. 무엇을 얼마나 발표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실제로 바꾸었는가를 묻는 정치. 얼마나 많은 예산을 따랐느냐가 아니라, 그 예산이 시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를 따지는 정치. 그리고 실패했을 때는 변명보다 책임을 먼저 말하는 정치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남는 정치'가 아니라 '일이 남는 정치'다. 회의 횟수가 아니라 해결된 문제의 숫자로 평가받는 정치, 숙의 기간의 길이가 아니라 얼마나 깊고 진지하게 토론했는지로 평가받는 정치,

홍보물의 두께가 아니라 시민의 체감도로 평가받는 정치, 그리고 다음 선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정치 현장에서 자주 마주하는 장면 중 하나가 '아침 산악회 인사'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정치인의 필수 코스"라 말하고, 누군가는 "보여주기식 정치의 상징"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문제는 산악회에 인사를 가느냐, 가지 않느냐가 아니다. 그 자리가 '사람을 만나기 위한 자리'인지, '사진을 남기기 위한 일정'인지에 따라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불편함을 메모하고, 이후 행정과 의정 활동으로 연결된다면 그것은 분명 정치다. 하지만 인사만 하고 돌아서며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면, 그 순간부터 그 것은 정치가 아니라 연출이 된다.

정치에서의 가짜 일은 거짓말이 아니라, 바로 이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바쁨'에서 시작되는 것 아닐까. 시민은 생각보다 정확하다. 누가 진짜로 듣고, 누가 진짜로 가는지 오래지 않아 알게 된다.

정치가 다시 신뢰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가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용기다.

정치는 결국 사람의 삶을 바꾸기 위해 존재 한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이미지가 아니라 책임으로, 그렇게 한 걸음씩 신뢰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 가짜 성과를 줄이고, 진짜 일을 늘리는 정치. 그것이 지금 우리 정치에도 입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개혁이라고 믿는다.

本土 説

격동의 한해 2025년 잘가라

2025년이 저운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12·29 여객기 참사의 여파 속 어수선했던 분위기가 이어지며 연말까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다. 본보가 선정한 광주·전남 10대 뉴스를 통해 단면을 엿볼 수 있다. 먼저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논의가 18년 만에 역사적 합의에 이르렀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의 '6자 TF' 구성 지시 후 급물살을 타 탑보 상태에서 벗어났다.

글로벌 AI 선도기업 오픈AI와 SK가 전남 서남권에 오픈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공동 구축하기로 한데 이어 삼성SDS가 국가AI 컴퓨팅센터 부지를 해남 솔라시도로 특정하는 등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남은 총사업비 1조 2천억원 규모의 혁신융합(인공태양) 연구시설도 나주 유치에 성공했다. 대한민국에너지 수도로 기반을 다졌다. 빛의 혁명을 통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포함돼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졌다. 6월 민중항쟁으로 산불이 1987년 체제가 운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붕괴 기도로 한계를 드러낸 만큼 개헌에 대한 당위성을 갖고 있다.

해묵은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발판을 구축한 반면에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

체 건설은 '햇구호'가 됐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년에도 여전히 진상규명은 요원하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단 1명도 처벌받지 않고 있다. 광주시가 발주한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중이던 옥상층이 무너져 4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다. 일어나선 안될 비극이 반복됐다.

광주시는 이재명 정부가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역점 시행한 소비쿠폰을 취약계층에 색상으로 차별화해 지금, 행정편의적 발상과 인권 감수성 부족을 지적받았다. 여름에는 괴물 폭우와 극한 폭염이 지속돼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지역을 대표하는 제조업체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선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대유위니아 계열사 파산 등이 맞물려 광산구가 견의한 고용위기 지역 지정이 받아들여져 한숨을 돌릴 수 있다.

청와대에 다시 불이 켜졌다. 대한민국 국가수반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게양됐다. 6·3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이 대통령은 12·3 계엄으로 얼룩진 용산시대를 마무리하고 국정 정상화의 본격 시작을 알렸다. 국민 안전과 행복, 민생의 회복과 성장을 다이루는 2026년 새해를 기원한다.

고향기부금 200억은 전남도-시군 상생협력의 성과

전남도가 시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고향사랑기부금 200억원을 모금했다. 전국 최초의 일이다. 도는 광역 차원의 흥보를 총괄하고, 시군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과 현장 활동에 집중해 왔다. 특히 중앙부처·공공기관 대상 공동 흥보, 향우회와 연계한 독려, 죽제와 각종 행사 캠페인 등을 추진하며 저변을 꾸준히 확대했다.

기부금을 통해 주민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도는 고령화와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마을 공동 빨래방 운영'을 지원하며,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생활 편의를 제고하고 있다. 곡성군은 65년 만에 첫 상시 소아과를 개원함으로써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아이 기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중대 전환점을 마련했다. 완도군은 'BC 유소년 야구단' 운영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체육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고향사랑제가 담고 있는 지역 상생의 가치가 확산하고 있다. 기부문화에 대한 공감과 신뢰가 쌓여가고 있다. 지방재정 확충과 생활·관계인구

확보에도 특별히 도움이 되고 있다. 2023년 1월 1일 시행 이후 짧은 기간에 의미있는 제도로 정착 했음을 보여준다.

전남도는 SNS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리고 주요 행사와 캠페인에 함께 하면서 전국 각지와 해외에 거주하는 출향 도민과 사랑애(愛) 서포터즈의 자발적 동참에 주력하고 있다. 시너지 효과를 거둔 셈이다. 담례품 또한 최고 수준의 경쟁력으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도는 품질 관리와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시군은 농·수·축산물은 물론 체험·스토리형을 적극 발굴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과 사람을 다시 연결하고 있다. 철저한 맞춤형 기금사업에 운영의 투명성으로 기부자에게는 더 큰 보람을 안기고, 지역에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었다. 유기적 협조와 연대 아래 200억원 모금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3년 연속 전국 1위 목표 역시 예정된 수순이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일회성 참여를 넘어 지속 가능한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기고

김 덕진
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2023년 일본 NHK에서 '어떡할래, 이에야스'라는 대사극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눈길을 끈 이유는 일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인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다루었다는 점, 그리고 도쿠가와 역으로 일본 대표 미남 배우 마츠모토 준이 맡았다는 점에 있었다. 최고의 소재와 배우가 동원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시청률은 기대에 못 미치고 말았다.

갑자기 무슨 말 하느냐고요? 광주와 전남은 분리된 후 늘 각자도생만 했다. 그러나 오랜만에 양·시·도 상생협력 사업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가운데 하나가 2017년 설립된 '한국학호남진흥원'이다. 영남은 이미 지역 국학 연구기관을 설립해 순항하고 있는데, 호남은 시민과 연구자가 손잡고 사회운동 차원으로 깃발을 든 지 10여 년 이상 표류하고 있던 때에서 눈길을 끌었다. 그런데 지금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어떤 이는 '한국학호남진흥원'이 애물단지로 있었다.

이 10만 점 이상의 한국학 자료를 보존할 공간이 꽉 차 비좁은지 이미 오래됐다. 더 큰 문제는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낡은 건물에서는 화재를 예방하고 재난을 방비해 안전하게 자료를 보존할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자료를 기탁해주라고 소장자에게 말하기가 부끄러운 지경이다. 이미 와 있는 자료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안녕, 자료야!"라고 말해야 할까? 최악의 경우 자격

어떡할래, 한국학호남진흥원

전락했다고 비아냥거린다. 난 절대 아니라고 항변한다.

독립청사와 안전한 수장고, 기관 존립의 최소 조건

진흥원 출범 당시 손 떼었던 전북이 갑자기 나타나 눈앞에서 얼씬거린다. 스텝이 꼬여도 한참 고여 있다. 그래서 불쑥 든 생각이 '어떡할래, 한국학호남진흥원'이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은 출범한 지 만 8년을 넘겼다.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고속 질주했다. 그 가운데 방대한 고문헌을 각지의 소장자로부터 기증 및 기탁받았다. 최근 10만1천여 점 수집을 돌파했다. 하루 평균 340점을 모은 셈이다. 연구원 1인당 5천50점을 수집한 편이다. 엄청난 성과다. 그 가운데는 문화유산으로 조건 미충족으로 감독기관으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을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길'은 이제 그만, AI를 접목한 각종 콘텐츠 기대

"어떡할래, 한국학호남진흥원!" 운영비, 인건비, 연구비 등의 돈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그들이 걸어온 여정도 거론하지 않겠다. 다만 샛방살이 청사의 수장고가 너무 좁고 낡아 보존시설로는 취약하니, 안전한 수장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게 말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학호남진흥원'이 존립 할 최소한의 조건이다. 최소 조건 없이는 그 어떤 자금도 가질 수 없고 생명력을 유지할 수도 없다.

이제 '길' 조성은 철 지난 레페토리다. 제주 올레길 이후 정점에 올랐다가 기운 지 한참 됐다. 기껏 생각한 것이 이런 것이었는가를 떠올리면, 한심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이제는 콘텐츠가 대세이다. 광주시가 인문학을 포함한 '3대 문화축'을 표방했으니,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풍부하게 소장하고 있는 인문학 원천자료를 토대로 호남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에 빨리 눈길을 돌려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널리 빛내야 한다.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할 역사문화 콘텐츠 향유를 기대한다.

독자투고

해님이·해맞이 혼잡인파 안전이 우선

아쉬운 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다. 신년 첫날인 1월 1일 전국 유명 해님이 해맞이 행사장에서는 명소를 찾는 관광객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연말연시에 즈음해 각종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있어 새해 첫날 일출을 보기 위해 전국 유명 해맞이 장소를 찾는 사람들들은 경각심을 가졌으면 한다. 특히 해맞이 행

사의 경우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들뜬 마음에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더욱 높은 게 현실이다.

계다가 안전을 쟁기기에 앞서 '내가 먼저 해맞이를 하겠다'는 욕심은 안전사고 가능성은 높아진다. 따라서 참가자들은 스스로 다중 운집 장소에서 질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다. 안녕, 자료야!"라고 말해야 할까? 최악의 경우 자격

겨울철을 맞아 차량 내 히터 사용이 급증하면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차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겨울철 졸음운전은 히터를 장시간 사용하면서 밀폐된 공간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산소가 부족해져 차량 내부 공기 순환

겨울철 '졸음운전' 방지해선 안 돼!

것이 사고 주요 원인이다. 또 차량 내부가 건조해지면서 입과 목이 마르고, 수분 부족이 피로를 가중시켜 졸음 위험이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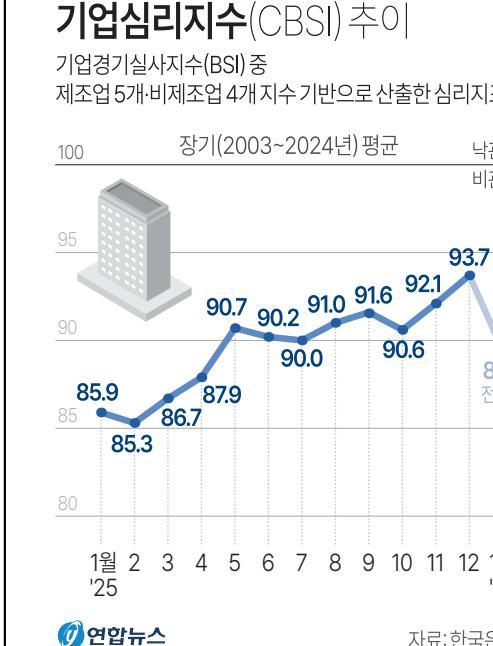
겨울철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운전을 하다가 졸리면 잠시 않고 졸음

쉼터와 휴게소 방문해야 하며, 차량 내부 온도 21~23도로 맞춰야 한다. 아울러 동승자는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하며 말을 걸어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김덕형·장성경찰서 삼서파출소장>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기업심리지수(CBSI) 추이



제조업의 미국 설비 투자 확대와 비제조업의 연말 특수기 겹치면서 올해 12월 기업 체감 경기가 1년 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12월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16포인트(p) 오른 93.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7월(95.5) 이후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CBSI(94.4)는 자금 사정(+0.9p), 생산(+0.4p) 등을 중심으로 11월보다 1.7p 상승했다. 비제조업 CBSI(93.2)도 매출